

즐거은 눈술여행

세계화와 전통문화(1)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구촌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상호의존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면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역적인 공간이 축소되면서 지구상의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적 단위가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사회인 지구촌을 전제로 몰타 인력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사회를 말한다.

세계의 긴밀한 상호 연관과 의존으로 특정 지위지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의 굴뚝 대신 '문화산업'이 다음 세기를 이끌 주력산업이며,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리라는 것이다. 공해를 배출하거나 자원을 고갈시키는 산업도 없고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바로 문화산업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자국의 문화 전통과 문화적 캐릭터를 개발하여 세계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화는 가장 우수한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민족과 문명이 공존할 수 있는 다원적 문명 세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세계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민족의 전통을 재창조하여 세계인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전통문화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는 없다. 지난날의 문화는 그 시대와 그 시대 인간 집단의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며, 그 필요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도 반드시 오늘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재생산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그래서 전통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 바탕 세계화 모색을

그렇다면 왜 전통을 되살려야 하는가? 한 민족에게는 그 민족만의 고유한 생활문화, 관습, 정신문화들이 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익혀지거나 생활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표지(標識)가 된다. 가령 한국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고 인정이 풍부하거나 인사말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풍속이며, 이것이 한국 사람의 표지이다. 이러한 특징, 즉 한 민족을 하나로 엮어주는 고유한 특징을 전문적 용어로 말하면 민족의 정체성(正體性:identity)이라 한다.

한 개인에게도 그 사람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심하게 훼손되면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병에 걸리기까지 한다.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체성을 상실한 민족은 뿌리가 없는 것이나 다를 것 없으며, 세계사의 격랑 속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한때 청제국(淸帝國)을 세워 중원(中原) 천하를 지배했던 만주족이 형태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해준다.

이렇듯 전통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근근이고, 경험적 규범이며, 변화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력이 된다.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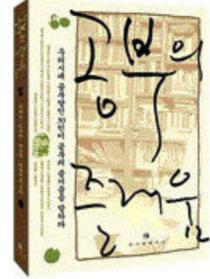
황현석 광주대성·초암미술 아카데미 대표강사

공부, 스스로 하면 재밌다

'공부 달인' 3인이 말하는 '공부의 즐거움'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부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공부가 즐겁다'고 예찬하는 '별난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게 너무 좋아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는 '공부 달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공부의 즐거움'(위즈덤하우스 펴냄)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이 책은 문학·철학·역사·종교·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 달인 30명이 공부에 매달린 동기와 일화 등을 '즐겁게' 소개하고 있다. '괴로운 노동이자 즐거운 창조'(강경관·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원초적 본능'(고미숙·고전평론가), '윤리적 삶을 향한 끝없는 여정'(김태길·대한민국미술원 원장), "미지의 세계, 그 유혹"(이윤남·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공부가 놀이요, 놀이가 곧 공부'(임형택·한문학자), '공부는 꽃보다 아름답다'(최완수·미술사학자).

이들이 공부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다양하다. 또 공부가 즐겁게 된 동기와 과정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큼은 다를 수 없다. 이들은 '시험문제 푸는 것'이 아닌 진짜 공부를 통해 삶의 재미를 느껴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학생 뿐 아니라 어른들도 새겨들어야 할 공부와 함께 울고 웃었던 이들의 고백에 귀기울여보자.

내게 있어서 공부는 생존 장애되고 인생 의미 찾아

▶ 장영희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장영희(54)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에게 공부는 '생존'이었다. 한 살 때 걸린 소아마비로 인해 몸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 채 지냈던 때이다. 부모는 소아마비에 걸린 딸의 재능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서부터 손끝은 무뎠고, 노래와 그림 등에도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장 교수가 다섯살 되던 해 한글을 깨치고 순정만화를 읽는 오빠 앞에서 눈물을 푹푹 흘리는 모습을 본 장 교수의 어머니는 "공부 밖에 할 것이 없는 팔자"라고 했다.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발붙일 근거를 공부로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어려웠다. 부모의 노력과 잘 위하는 능력 덕에 어렵사리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닫힌 사회와의 싸움에서 그는 결국 이겼다. 이처럼 장 교수에게 공부는 전무적이고 비장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싸움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공부처럼 쉬운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육체노동은 싫어하고 게으른(?) 장 교수에게 있어 '공부할 팔자'는 기막힌 행운이었던 것이다. 현재 알 투벌 중인 장 교수는 "공부의 목적이 학습이고, 또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면 암이라는 병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몸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더 의미 있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책 섭렵하며 자연과 놀아 생명 존엄성 자연스레 배워

▶ 윤구병 전 충북대 철학과 교수



윤구병(63) 전 충북대 철학과 교수의 현재 직업은 농부다. 그는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을 나와 1995년 대학 교수직을 스스로 그만 둔 뒤 전북 부안으로 내려가 농사짓는 삶을 살고 있다. 윤 전 교수는 6·25 전쟁으로 형제 6명을 잃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회주의권 민주주의권 전쟁의 이데올로기가 제도 교육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살아 있는 자식들은 학교에서 최대한 멀리 두려 했다. 그래서 그는 4살 이상 어린 급우들과 공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4년여의 시간이 윤 전 교수에게는 소중한 기회였다. 자연 속에서 자라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닌 '생명의 시간', '자연의 시간'이 무엇인지 배우 익힐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겨울이건 여름이건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나는 '인위적 시간'이 있을 뿐이지만,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윤씨는 "초등학교는 나와야 제 앞가림을 한다"는 사촌형의 살뜰한 아버지와 "학교 끝나는 대로 농사일을 거들 것"을 약속하고 제도권 교육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제도권에서 다시 '퇴출'당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학과 공부는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 공부와 무관한 온갖 책들을 섭렵하고 산과 들에서 자연과 놀았다. 그는 15년 간의 철학공부를 그만두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 지금,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려"는 공자의 말씀 뒤에 생략된 말이 '그러지 않으면 제 앞가림할 수 없을테니...' 쯤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처음엔 무조건 암기식 학습 자발적 공부하자 진리 보여

▶ 박흥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박흥규(54)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를 "공부 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 공부로 시작해 공부로 끝나며,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라는 말만 듣고 어른이 돼서도 다시 그 말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나라. 박 교수도 처음에는 무조건 공부를 했다. 산업화가 지배하던 196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암기만을 강요하는 학교 공부가 너무 싫어 학교 밖의 은밀한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에 열중했다. 그 결과 암자가 됐다 한다. 하지만 교수인 지금도 그는 그런 식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학생' 신분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유신시대 대학을 다니면서 시험공부의 극치인 법학 중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노동법'이란 한탄 길을 선택했다. '노동자를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법이나 법이 아닌 전인적인 공부가 필요했다. 학창시절 암자를 감수하면서도 강행했던 공부 말이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개혁을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중이지만 골격은 아직 위주인 현행 교육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사실 교육방식은 로스쿨 제도가 아니라 교수나 교사가 바뀌면 된다. 물론 학생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박 교수는 그래서 다시 묻는다. "왜 공부를 하는가?" 절망한 시대와 사회를 바꾸고 자유로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찾아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게 그의 답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에이플러스 부동산건설링... 광주·전남권 토지구합... 062)973-9177, 011-625-1362

환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들에게... 010-7288-4351, 04342-894

호남랜드공인중개사... 0373-3939, 011-616-8698

중랑구토개발건설링... 011-647-3500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052-9422, 011-643-3210

대지공인중개사... 011-625-3965